

對日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 파견

- 중부, 관서, 동경전력 등 방문 상담 -

日本の 電機업체와 電力會社들은 엔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로 부터의 자재조달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대규모 자재조달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나고야 중부전력은 우리나라 전력기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지난 4月 국내 전기업체를 방문, 국내 제품의 경제성과 우수성을 인정하고 구매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아국공관을 통하여 對日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韓國電機工業振興會에서는 국내 전력기자재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對日本 수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오는 9月 17日부터 23日까지(7일간) 나고야 중부전력, 오사카 관서전력, 동경의 동경전력 등 일본의 주요 3대 전력회사에 민·관 합동의 수출촉진단을 구성, 파견한다.

진흥회 李喜鍾회장을 단장으로 현대중공업(주) 등 주요 중전기 업체 23개사와 통상산업부 관계관 및 한국전력 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등 총 42명이 참가하게 되는 이번 대일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은 현지 전력회사 구매부서와 직접 구매 상담회를 갖게 되며 자재조달 방법 및 구매절차 등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이번 방문기관중에는 구매상담을 갖는 외에도 그동안 대외 개방의 전례가 없었던 발전설비 및 변전소 등을 시찰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높은 벽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대일지역 수출시장 진출의 교부보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振興會는 이번 방문을 통해 日本 전력회사에 우리 重電機器 제품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소개함으로써 일본 타 전력회사 및 전기업체에도 우리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 수출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일본의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게 되어 향후 국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